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타당화 연구

하 정 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완벽주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는 특성적 측면의 완벽주의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완벽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만으로는 이들 문제들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에 있어서 대인관계에서의 표현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 척도를 번안하고 대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인구조를 탐색한 결과, 원 저자가 제시한 대로 세 개의 요인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 요인이 확인되었다. 내적 일치도로 살펴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행복감 및 자기 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유용성과 연구의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다차원적 완벽주의, 행복감, 자기존중감

[†] 교신저자: 하정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Tel: 02-2290-0364, E-mail: hajung366@hanmail.net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상황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높은 수준의 수행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Hamacheck, 1978),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는 특히 초기에는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짐으로서, 완벽주의는 오랫동안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왔다(Blatt, 1995; Burns, 1980; Pirot, 1986).

그러나 최근 들어 완벽주의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여러 이론가들이 제안하고 있으며(Blatt, 1995; Terry-Short, Owens, Slade, & Dewey, 1995), 1990년대 초반에 두 개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가 제작되면서 완벽주의의 긍정적, 부정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박현주, 1999; 이미화, 2001; 황혜리, 2001; 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1; Frost, Heimberg, Mattia, & Neubauer, 1993). 완벽주의를 이렇듯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Hewitt과 Flett(1991a)은 완벽주의의 특성 차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 행동의 방향성이 개인 내적인 측면을 향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완벽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 긍정

적인 측면이 논의되기도 하지만(이은영, 2003;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우울(Hewitt & Flett, 1991a), 불안(Flett, Hewitt, & Dyck, 1989), 신경성 식욕 부진증(Coopr, Cooper, & Fairburn, 1985)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연구들 간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완벽하게 해내도록 기대하며 타인의 행동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타인에 대해서 적대감과 불신, 비난, 냉소적 태도를 보임으로서 가족문제와 부부문제 등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동기를 촉진시키거나 리더쉽이 요구되는 상황 등에서는 바람직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Burns, 1983, 이원희, 2001, 재인용).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승인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 또는 지각을 나타낸다. 이 차원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고 분노, 불안, 실패감, 무망감 등의 정서를 경험하며 우울, 불안, 분노, 성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적 특성과 일관성 있게 관련된다(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1; Pacht, 1984; Hewitt & Flett, 1991b; Hewitt, Flett, & Turnbull-Donovan, 1992; Saboonchi & Lundh, 1997; Shahar, Blatt, Zuroff, & Pilkonis, 2003).

살펴본 바와 같이 완벽주의는 적응적인 특성과 부적응적인 특성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완벽주의는 성격에 있어서의

특성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이렇듯 완벽주의적 성격의 특성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이 기존의 정신병리에 영향 미치는 성격에 대한 연구들에서 개인의 성격을 겉으로 드러나는 대인관계적 측면(interpersonal aspects)과 개개인의 성격 내용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적 측면(trait aspects)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기한 이래(Buss & Finn, 1987; Paulhus & Martin, 1987), 개인의 심리적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의 대인관계적인 측면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Wachtel, 1994). 즉, 성격의 특성적 측면과 같은 정적인 측면(static aspect)만으로는 병리가 발달하고 유지되는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인상호간의 과정을 통해 겉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완벽주의에 적용시켜 볼 때,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만으로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완벽주의적 성격이 대인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주의 성격의 일부로서 완벽주의적인 행동의 대인관계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 성격의 측면 가운데 특성적 완벽주의가 완벽주의와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예: 높은 자기 기준), 성격의 또 다른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신들이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같은 표현적 욕구

에 관심을 둔다고(예: 자기 증진적 행동) 설명하였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극단적이며 타인에게 자기를 기만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Hewitt 등(2003)은 이와 같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세 가지 하위요인을 가진 다차원적 개념임을 제안하였다. 이들 세 가지 하위요인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불완전함은 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인 상황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성공한 모습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길 바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완벽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측면은 은폐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남들로부터 호의적인 평판이나 존경 및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 등이 공적인 상황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 효능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Horney(1950)는 이 측면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판에 예민해져 있으므로 남들이 반대할 가능

성을 줄이고자 불완전한 상황을 과도하게 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마지막 차원인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나 결함들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기 꺼려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대인관계 내에서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걱정을 말로 표현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Weisinger & Lobsenz, 1981). 이와 비슷하게 Flett, Hewitt과 DeRosa(1996)도 부정적인 평가를 염려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좀처럼 자신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그들이 지각한 결점을 인정해야하거나 의논해야 할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특성적 완벽주의와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완벽주의자들은 공적인 상황에서 남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로 보이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결점 없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더 몰두한다(Hewitt & Genest, 1990). 이렇듯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에게 분명하게 지각되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양식으로서 낮은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Hewitt et al., 2003). 또한 완벽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완벽주의의 특성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사람들과 대인관계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사람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Frost et al., 1995; Hobden & Pliner, 1995). 가령,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특성이 강한 완벽주의자의 경우라도 어떤 개인은 완벽하고 싶은 압박감으로 인해 분노감과 적개심을 주로 느끼

지만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또 어떤 개인은 자신이 공적인 상황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완벽해지고 싶은 스스로의 압력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사회에 의해 부과된 비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이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게 된다(Flett, Hewitt, Oliver, & Mac Donald, 2002). 여기서 설명한 전자의 경우처럼, 완벽주의의 특성적 차원은 완벽해지고 싶은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며, 후자의 경우인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은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성적 측면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적 측면의 완벽주의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자들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데, 가령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방식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적 압력에 반응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완벽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남들에게 능력 있고 강하게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동기화할 뿐 아니라, 타인들도 그가 결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또한 Hewitt 등(2003)도 척도 개발 시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특성적 측면의 완벽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주의적 자기증진, 불완전함 은폐노력과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다. 동시에 불완전함 은폐노력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관련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신의 완벽함을 요구하며 매우 비판적이라고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st 등(1995) 또한 완벽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은 주로 자신의 실수를 감추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의 특성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완벽주의의 특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드러나는 측면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완벽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완벽주의의 대인간 표현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으나 이를 타당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Burns(1980)의 말처럼, 성취지향적이고 자기애적인 현대사회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개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이며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김윤희, 서수균, 2008). 국내에서도 최근에 경쟁적 분위기가 더욱 더 심화되고 성취지향적인 방향으로 사회분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벽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 만으로는 이들 문제들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의 부적응적인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제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도출 하는 데에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속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를 번안하고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하여 이 척도의 하위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둘째, 요인 분석한 하위 변인들과 관련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A, B 대학과 경기도 C 대학교 학부생 239명(남자 133명(61.3%), 여자 69명(31.8%), 무응답 15명(6.9%))을 대상으로 2009년 3월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 시간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충분한 시간(약 30분)을 주었으며, 응답한 질문지는 이들이 응답을 마친 후 한 번에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23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9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17부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도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척도로서 총 27문항이며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10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10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 7문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번안과정에서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1명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친 후, 영어권에 5년 이상 거주한 심리학 전공 박사 1명이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 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 여러 번 재수정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박사과정생 4인의 감수를 받아 문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항은 17문항이며 점수분포는 17점에서 119점까지 나타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변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6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 3문항이 포함된다. 원척도에서도 세 가지 하위요인의 문항 수 가운데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차원의 문항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문항 제작 시에 이 차원의 문항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차원의 문항들이 불완전함을 은폐하기 위한 특성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차원

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항수가 더 많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Hewitt et al., 2003).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9, .76, .59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한기연(1993), 홍혜영(1995) 등이 이 질문지를 번역하고 김연수(1998)가 이를 재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완벽주의를 귀인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분류되며, 이들 각각의 하위차원들은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문항은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ewitt과 Flett(1991) 연구에서의 척도의 세 가지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2, .86, .87이었고, 본 논문에서의 이들 세 가지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7, .79, .83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척도

Lawton(1975)이 개발한 P.G.C.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김영우(1998)가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학생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인 문항이 5개, 부정적인 문항이 12개 총 17개 문항으로서 이분법적 응답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2였다.

자기존중감 척도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존중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병제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5였고, 본 논문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3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SPSS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 사각회전(oblimin)으로 요인구조를 탐색하였고, Amos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하위 척도 및 전체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고 여러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속성다측정(Multitrait Miltimethod: MTMM)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분석만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타당도 분석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결 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요인구조

및 내적 일치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문항 27개를 분석한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 test of Sphericity)은 2444.230($p < .001$)이었고, 표본 적합성의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값은 .859로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우선, 주성분 분석 결과 아이겐 수치가 1 이상인 요인이 7개 도출되었지만, 스크리 플롯(factor scree plot) 고유치의 하락 정도와 요인별 부하량을 볼 때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1 참고). 요인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스크리 플롯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Floyd & Widaman, 1995; Hewitt et al., 2003) 원칙도 제작과정에서도 역시 이를 기초로 하여 3개의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의 수를 3개로 고정시키고 요인 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30 이상 되고 다른 요인들의 요인 부하량과 .10이상 차이가 나는 24개의 문항을 추출할 수 있었다(1, 13, 15번 문항 제외). 이 가운데 선행연구의 각 요인별 문항을 기초로 하여, 요인의 범주가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문항들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세 개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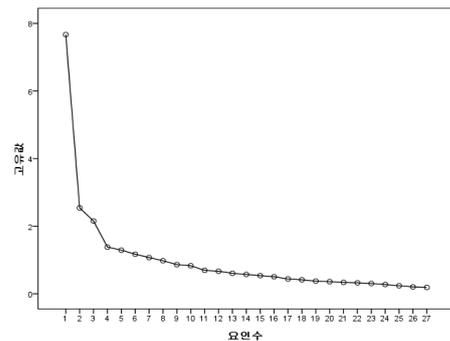


그림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표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원척도 요인구조에 따른 번역판 척도의 구조계수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5.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760	.131	.095
7.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631	.331	-.008
10. 내가 지닌 실제 능력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고 싶다.	.541	.121	-.161
15. 나는 언제나 나의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512	.217	.422
17. 사회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760	.202	-.028
18. 옷을 멋지게 차려입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229	.094	-.603
23.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한 완벽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767	.170	-.040
25. 언제나 모든 것들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695	.196	.217
26.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821	.202	.069
2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802	-.029	.011
요인 2.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2.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에 근거하여 나 스스로를 판단한다.	.251	.327	.216
3.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356	.432	.422
4. 실수는 은밀하게 저질렀을 때 보다 공공연히 저질러졌을 때 훨씬 더 나쁘다.	.130	.424	.249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226	.710	-.146
8.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214	.557	-.140
11. 내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038	.309	-.485
12. 만일 내가 맡은 일을 매우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218	.359	.262
20.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127	.760	.011
22.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039	.755	-.006
24. 내가 실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292	.583	.287
요인 3.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다.	.382	.406	.251
9.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089	.017	.451
13. 나는 늘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094	.198	.609
14.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들을 말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26	.170	.620
16.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인정해도 괜찮다.	.006	.494	.260
19.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일이다.	.213	.347	.445
21. 내 단점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165	.696	.027
eigenvalue	7.632	2.556	2.155
설명변량(%)	28.266	9.465	7.980

으로 구성된 18개의 문항을 추출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다음으로 이를 다시 요인 분석하여 다른 요인들의 요인 부하량과 .10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1개 문항(24번 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7개의 문항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54.10%였다(표 2 참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요인 1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으로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이며, 문항 5, 7, 10, 17, 23, 25, 26, 27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결함이나 실수 따위들이 공적인 상황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로 명명하였으며, 문항 2, 4, 6, 8, 20, 22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 및 결함들을 남들 앞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으로 명명하였고, 문항 9, 13, 14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요인들의 내적 일치

표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최종적 요인구조 및 내적 일치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5.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755	.147	.146
7.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끄찍할 것이다.	.631	.377	.056
10. 내가 지닌 실제 능력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고 싶다.	.575	.083	-.128
17. 사회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680	.241	.030
23.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한 완벽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786	.177	.001
25. 언제나 모든 것들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708	.123	.251
26.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839	.142	.085
2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802	.008	-.006
2.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에 근거하여 나 스스로를 판단한다.	.205	.398	.288
4. 실수는 은밀하게 저질렀을 때 보다 공공연히 저질러졌을 때 훨씬 더 나쁘다.	.110	.440	.296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끄찍할 것이다.	.220	.781	-.083
8.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177	.678	.034
20.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134	.763	.116
22.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046	.786	.012
9.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093	.003	.499
13. 나는 늘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065	.085	.814
14.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들을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87	.121	.784
eigenvalue	5.525	2.068	1.605
설명변량(%)	32.499	12.162	9.440
Cronbach 알파(전체척도= .85)	.89	.76	.59

도(Cronbach α)는 요인 1, 요인 2, 요인 3 순으로 각각 .89, .76, .59이며, 전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하위척도 간의 상관

표 3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요인으로 나타난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척도 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이 가운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간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 간의 상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 간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 요인구조의

표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 요인 간의 상관계수

	PSP	NDP	NDC
PSP	1		
NDP	.54***	1	
NDC	.16 [*]	.29***	1

PSP: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NDP: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NDC: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 $p < .05$, ** $p < .01$, *** $p < .001$

타당성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에서 추출된 3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카이제곱 통계치를 보면 유의도가 .05보다 작아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나 GFI와 TLI가 .90에 근사하고 CFI가 .90 이상이며 RMSEA 값이 .05 ~ .08 사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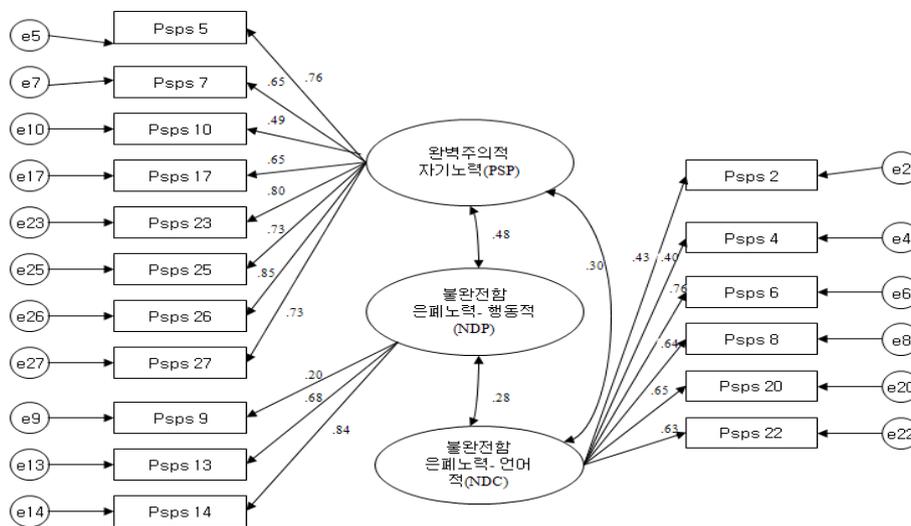


그림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요인구조 모형

표 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 요인 구조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합도지수	χ^2	df	GFI	TLI	CFI	RMSEA
모형	230.077	112	.891	.894	.912	.070

되어서 비교적 수용할만한 적합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형에서의 모든 회귀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각 항목과 해당 요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와 유사한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척도인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고,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척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고, 다속성다측정(Multitrait Miltimethod: MTMM) 방법으로 상관계수에 기초한 타당도 분석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이들 결과들을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하위 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하위요인인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및 전체 완벽주의의 총합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행복감이나 자기존중감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하위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하위요인인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

표 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와 완벽주의 척도(H-MPS) 및 행복감, 자기존중감과의 상관

	PSP	NDP	NDC	PSPS 총점	SOP	OOP	SPP	H-MPS 총점	행복감
PSPS	PSP								
	NDP	.54***							
	NDC	.16*	.29***						
	총점	.87***	.85***	.45***					
H-MPS	SOP	.68***	.25***	.09	.53***				
	OOP	.52***	.30***	-.07	.43***	.52***			
	SPP	.42***	.44***	.27***	.52***	.41***	.42***		
	총점	.69***	.40***	.11	.62***	.87***	.78***	.78***	
행복감	-.08	-.33***	-.27***	-.27***	.12	-.05	-.32***	-.07	
자기존중감	-.03	-.37***	-.24***	-.30***	.29***	.07	-.21**	.11	.63***

PSP: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NDP: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NDC: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SOP: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OOP: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SPP: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가된 완벽주의' 및 전체 완벽주의 총합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보다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가된 완벽주의'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하위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으로 부가된 완벽주의'와만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총합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세 하위 척도 및 총합과도 모두 밀접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와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련성들을 통한 표 6의 결과를 통해 볼 때에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개념이 비교적 타당함을 보여준다.

표 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행복감, 자기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다속성 다측정 적합도 분석 결과

부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모형	385.110	188	2.04	.896

논 의

본 연구는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를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가 국내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대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원칙도와 유사하게 3요인 모형이 수용할 만 하였고, 요인 중요도 순위도 원칙도와 일치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5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하위 변인의 하나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9,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76,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59로서, 요인 1과 요인 2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에 비하여 요인 3인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의 내적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상당수가 원칙도의 내용과는 다른 요인에 묶였거나 다른 요인들의 요인부하량과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남은 문항 수만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여겨진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성적 측면의 완벽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Frost et al., 1995; Hewitt et al., 2003; Hobden & Pliner, 1995) 점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특성적인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전체 척도와 다차원적 완벽주의 전체 척도 간의 상

관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 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과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변인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OP)’,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OP)’,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PP)’와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 변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변인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PP)’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의 표현적 특성을 측정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완벽해지려는 동기를 반영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척도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완벽주의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기존의 척도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의 하위변인 가운데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과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이 특성적 차원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변인 모두와 전체적으로 더욱 더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은 특성적 완벽주의의 하위변인 가운데 오직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만 관련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완벽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공적인 상황에서 자

신의 불완전함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들 모두 완벽하고자 노력하는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측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인 상황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고 유능하며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이들은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완벽함’을 충족시키고자 애쓸 뿐 아니라 타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완벽함’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높은 비현실적 기준 및 엄격한 평가를 부과하게 되므로 강한 성취동기를 갖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적응적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Hewitt 등(2003)이 설명한 바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호작용하길 바라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남들로부터 호의적인 평판 및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예민해지고 대인관계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판에 예민하여 남들이 반대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불완전한 상황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 (Horney, 1950). 따라서 이 차원의 특성이 강할수록 자신과 남에게 모두 수행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한 인상을 제시할만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비판에 예민해짐으로써 완전하지 않은 상황을 피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특성이 강할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나 결함들을 남들 앞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이 실수를 말로 표현하려하지 않는 이유는 남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Weisinger & Lobsenz, 1981). 즉, 이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완벽주의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기준이 자신에게 과중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타인에게 계속적인 인정이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동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칙도에서는 타당화 검증을 위해 자기존중감, 자기 은폐, 자기 조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Hewitt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자기존중감과 행복감의 상관을 함께 살펴보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면서 더욱 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이므로 대인관계적인 맥락에서 낮은 자기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Hewitt et al., 2003; Hewitt & Flett, 1991, 1993).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소속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강하며 경직된 대인관계 양식을 드러내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기술 부족은 자기존중감을 낮아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또다시 자기존중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이

는 불안정한 모습으로 자아를 살피려는 욕구로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며 공적인 방법으로 자기존중감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aufman & Levy, 1989).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특성적 측면의 완벽주의와 마찬가지로 우울(Walter, 2007), 사회불안(Laderoute, 2008), 섭식장애(Koch, 2006), 그 밖의 다양한 심리적인 부적응과 관련지어서 설명되어져 왔다(Hewitt & Flett, 1991, 1993; Flett & Hewitt, 2002; Flett, Hewitt, & DeRosa, 1996). 이에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자기존중감과 더불어 변안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타당도를 살피는 데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결과, 전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낮은 자기존중감 및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던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변안된 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가 기존의 척도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변인 별로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차원은 행복감이나 자기존중감과 아무런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에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차원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 모두가 행복감 및 자기존중감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변인 별로 행복감이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특성 자체가 광범위한 심

경증적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반면에(Bem, 197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측면에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이 공존함을 다수가 제기한 바 있다(Arkin, 1981; Jones, E. E. & Pittman, 1982; Schlenker & Weigold, 199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Hewitt 등(2003)이 제시한 바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 변인 별로 독립성이 나타나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차원보다는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차원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이 심리적 부적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져 왔던 특성적 차원의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표현하는 측면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척도가 국내에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남들에게 보다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여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으로 설명된다. 지금까지는 완벽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같은 정적인 특성만을 주로 살펴왔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같은 성격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성격의 상호작용 측면을 포함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척도를 국내에서 번안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역기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안에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리나 심리적 부적응 여부 등에 하위 변인 별로 각각 다양한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부적응을 이해함에 있어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부적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실제 치료 장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이 척도가 다양한 대상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환자집단 등의 특수집단까지도 포함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의 신뢰도가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상당수가 원칙도의 내용과는 다른 요인에 묶였거나 다른 변인들의 요인부하량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들을 제외시켰으므로 문항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추후에 더 많은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하위 변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원칙도의 27개 문항이 한국어로 번안되어 실시되고 요인 분석을 거치면서 17개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원칙도를 번안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추후에는 원칙도와 번안된 척도 사이에 차이가 나는 문항 등에 대한 추가문항을 첨가하여 한국의 현실에서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보완하여 구성하고 이에 따른 기준이나 준거제작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

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특성차원의 완벽주의와 공통되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척도로 소개되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은 물론,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이들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며 원인을 밝혀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완벽주의 연구의 흐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연수 (1998). 성취관련 스트레스 경험 후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우울발생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우 (1998). 사회적 지원망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일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기능적 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25-444.
- 이미화 (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3).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적응의 차이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리 (2001).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심리적 특성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kin, R. M. (1981). Self-presentation styles. In J. T. Tedeschi (Eds.),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theory* (pp. 311-333). New York: Academic Press.
- Bem, D. J. (1972). Constructing cross-situational consistencies in behavior: Some thoughts on Alker's critique of Mischel. *Journal of Personality*, 40, 17-26.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34-52.
- Burns, D. D. (1983). The spouse who is a perfectionist.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17, 219-230.
- Buss, A. H., & Finn, S. E. (1987).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tra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2), 432-444.
- Cooper, Z., Cooper, P. J., & Fairburn, C. G.(1985). The specificity of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129-130.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1).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5), 147-160.
-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s, 20*, 143-150.
- Flett, G. L., Hewitt, P. L., & Dyck, D. C. (1989). Self-oriented perfectionism, neuroticism,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731-735.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r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Turcotte, T. A., Heimberg, R. G., Mattia, J. I., Holt, C. S., & Hope, D. A. (1995). Reactions to mistakes among subjects high and low in perfectionistic concern over mistak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07-22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 Genest, M. (1990). The ideal self: Schematic processing of perfectionistic content in dysphoric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802-808.
- Hewitt, P. L., &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ewitt, P. L., Flett, G. L., & Turnbull-Donovan, W. (1992). Perfectionism and suicidal potential.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181-190.
- Hobden, K., & Pliner, P. (1995). Self-handicapping and dimensions of perfectionism: Self-

- presentation vs. self-prote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461-474.
- Horn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York: Norton.
- Jones, E. E., & Pitman, T. S. (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 presentation. In J. Suls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1, pp.231-262). Hillsdale, NJ: Erlbaum.
- Koch, S. (2006).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isordered ea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 USA.
- Laderoute, K. T.,(2008). Perfectionism as a vulnerability factor for psychological distress: Exploring the roles of self-consciousness and perceived discrepa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rk U, Canada.
- Lawton, M.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6-89.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Pacht, A. R. (1984). Reflection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aulhus, D. L., & Martin, C. L. (1987).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apabil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54-365.
- Pirot, M. (1986). The pathological thought and dynamics of the perfectionist. *The Individual Psychologist*, 42, 51-5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In M. Rosenberg (Eds.),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boonchi, F., & Lundh, LG.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921-928.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2). Interpersonal process involving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133-168.
- Shahar, G., Blatt, S. J., Zuroff, D. C., & Pilkonis, P. A. (2003). Role of perfectionism and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response to brief treatment for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629-633.
- Terry-Short, L. A., Owens, R. G., Slade, P. D., & Dewey, M. E. (1995). 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5), 663-668.
- Wachtel, P. L. (1994). Cyclical processe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54.
- Walter, R. C. (2007). Self focus, perfectionism, and memory for emotion in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 America, USA.
- Weisinger, H., & Lobsenz, N. (1981). *Nobody's perfect*. New York: Warner Books.
- 투 고 일 : 2009. 10. 10.
2 차접수일 : 2010. 01. 18.
게재확정일 : 2010. 03. 16.

A Validity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Jung Hee Ha

Hanyang Cyber University

While most of perfectionistic personality assessment focus on trait perfectionism, there are limits to examine various mental health and maladjusted problem associated to perfectionis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 which assess expressive features of perfectionism and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 using 217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ree constructs of the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investigated by factor-analyzing were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The concurrent validity of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 was supported by correlations with happiness scale and self-esteem scal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tic Scale, happiness, self-esteem*